

되돌아보는 민선8기 1년 전북도정

함께 만들어가는 전북 성공스토리 '축적'

민선 8기 전국 최연소이자 광역단체장 전국 최다 득표의 영광을 안고 전북 도백으로 선출된 김관영 도지사. 김 지사는 2022년 7월 1일 도정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장 새로운 전북'을 앞세워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고 있다. 도전하고 성공하는 도전경성(挑戰竟成). 민선 8기 1년 전북도정 주요 성과를 돌아본다.

/편집자주

▲대형 국책사업 유치·공모사업 선정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북도는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8월 김관영 지사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발표실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PT를 하며 1조 1,267억원 규모의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가 성공했고, 기세를 이어 올해 1월에는 1단계 기술개발 사업의 R&D 예타대상에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와 함께, 군산항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4,915억원 규모의 제2준설로 투기장 건설사업이 확정됐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인구 유입의 선순환이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 국립 호남권 청소년상담센터 익산 유치, 도시재생사업 공모 전국 최다 선정(국비 500억원), 국가식품롤러스터 2단계·원주 수소특화국가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 등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

정부의 재정 기초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변화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전북도는 2022년 대비 2,227억원이 증가한 9조

1,59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처음으로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분야별 내실 있는 신규사업을 대거 확보(427건, 4,618억원)하며 지속성장 발전의 탄탄한 토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비 1,092억원)을 비롯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1조 554억원) 등 대형사업 예타 통과로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증액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일하는 도정 체질 개선

전북도는 도민·현장 중심의 미래 정책 발굴이라는 목표로 일하는 도정으로 바뀌고 있다. '일하는 도정, 유능한 도정,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경제 부흥을 위한 기업유치지원실을 도지사 직속 기구로 신설했으며,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 특례 발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타 시도 우수사례와 성공사례를 탐색하고 연구해 도정에 반영할 팀별 벤치마킹 아이디어 288건을 발굴했으며,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를 주제로 도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이러한 전북도의 노력은 매니페스트 토실전본부 주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결과 최우수(종합A) 획득,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광역 유일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1년간 60개사 7.1조원 규모 투자 유치 실적 달성

민선 8기 전북도는 1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11건, 6조원으로 대규모 투자 기업유치 사상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 1년간 (R)G화학, (R)두산 등을 비롯한 대기업 등 60개사를 유치했으며, 이들 기업은 총 7조 1,392억원을 투자하고 6,593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연간 기업 유치에서도 최대 실적 달성에 예상된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기업(500개)의 밀착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총 1,174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중 595건을 해결했다. 아울러, 환경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와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을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법안 발의 5개월 만의 성과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북경제와 도

지난해 12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데 이어, 28일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으로 전북도는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날개를 달게 됐다.

새만금 연계교통망 구축도 발빠르게 진행 중이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를 지난해 12월 개통했으며, 7월 2단계 완공으로 새만금 내부 십자형 도로를 완성해 새만금지역 광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지역간 연결도로도 예타에 선정돼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공사가 완료돼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새만금 철도 예타 통과 등 새만금의 대규모 물류·교통망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 초당적 협치 및 도·시군 상생 협력

민선 8기 1주년의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소통과 협치를 배놓을 수 없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사에서 임기 내 정치, 교육, 행정 협치를 강조하면서 정치권, 교육청, 시군과의 건강한 동행을 통해 전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의 시작은 파격적이었다. 민주당 출신 김 지사는 3급 상당 정책보좌관에 국민의 힘 인사를 임용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소통과 협치의 행보는 계속됐다. 전국 최초로 동행의원 명예도민증 수

여 연고의원 전북사랑도민증 수여, 국회의원 초선간담회 정례화 단계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정치권과 소통협력을 통한 전북 발전을 위한 공조 기반을 마련했다.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주요법안 제·개정에 큰 힘이 됐다. 특히, 국가예산 시대 9조원 시대 개막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로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 통과 등 도정발전 위한 성과로 돌아왔다.

전북도는 새로운 전북을 위한 전방위 소통·협치로 자치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과 시·군정을 공유하고, 전주·완주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계획 중이다.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교육청·대학의 교육 협치도 배놓을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통해 교육 협력 추진체계가 구축됐으며, 초·중·고 지역·대학협력·평생교육·청소년 정책 등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해 종합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정립했다.

또한, 민선 8기 교육협치 실현을 위한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선도모델 구축 등 6개 협의 안건을 합의했다. 학교와 지역연계 협력을 통한 농촌유학생 유치와 협력 학교를 18개 학교, 84명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교육 협치의 결과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 선정이라는 열매로 맺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연계 대학의 동반성장구축 기회를 확보하는 등 '함께 성장'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대형 국책·공모 선정, 국가예산 9조원 시대 열어

대규모 투자 11건... 기업유치 사상 최대 성과

전북특자도 출범·새만금 개발 촉진 기반 구축

특히, 민선 8기 전북도는 2차 전지를 비롯해 전기전자·반도체 소재 등 신산업 분야에서 21개 기업과 6조 1,758억원 규모 투자가 성사돼 고부가가치 고도 기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새만금을 언급하는 등 새정부의 규제 해소와 세제·예산 지원의 상징적인 장소로 우뚝 서게 됐다.

▲수요자 중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전북도는 물가·금리·환율 3H 및 내수경기 침체 등 기업들이 당면한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친기업

민 삶을 발전시킬 전북형 특례를 담은 법 개정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 후 3개월 만에 655건의 개별 특례를 발굴했으며, 농업·환경·금융·인력 등 4대 규제 해소와 생생경제를 선도해 '글로벌 생생경제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2022개 조문)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시·군과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4개 특별자치시·도와 자치분권 실현 및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촉진 기반 구축

군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28일 열린 본회의에는 새마을회, 한국예총 군산지회 등 방청해 시민과 함께 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와 2022년 새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간담회·현장방문을 실시했고,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부·김경식·김영자·이연화·설경민·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환경부 의원은 군산시 농산물 홍보탑의 안정적 운영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제안했으며, 김영자 의원은 반복되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 준립 위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설경민 의원은 공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으며, 서동완 의원은 스토리텔링 관광지형 발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27일 전북 분열을 조정하고 지역 이기주의의 전횡을 보여주는 김제시의회의 민행을 규탄하고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고속 도로 구간을 특별 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며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군산시의회는 27만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도의회 '10월 美 워싱턴주의회와 우호협력'

지난달 상호교류 의사 재확인... 이병철 도의원, 의장 특사 자격으로 방문 의향서 전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와 미국 워싱턴주의회가 오는 10월 중 우호 협력을 맺고 양 의회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의장 특사 자격으로 26일(현지시간) 워싱턴주의회를 방문한 이병철 의원(전주7)은 데니 헉(Denny Heck) 의장 겸 부지사, 크리스 길든(Chris Gilton) 상원의원, 키스 게너(Kieth Gehner) 하원의원, 메리 레빗(Mari Leavitt) 하원의원 등을 만나 전북도의회 의장의 우호협력 의향서를 전달하고 양 의회간 교류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의 전북방문을 계기로 나누었던 상호교류 의사를 재확인하고 활발한 교류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철 의원은 면담자리에서 "전라북도와 워싱턴주는 1996년 우호 협력 합의, 2004년 자매결연 체결이 이뤄졌으나, 의회 차원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교류가 없어 아쉬웠다"며 "앞으로 양 의회가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상호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데니 헉 의장은 "전북을 방문한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을 통해 전라북도의 탄소 및 농생명산업의 저력과 비상에 대해 전해 들었다"며,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교류를 강화하여 산업뿐 아니라 정책과 의정활동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뤄져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전



전북도의회 의장 특사 자격으로 26일(현지시간) 워싱턴주의회를 방문한 이병철 의원은 데니 헉 의장 겸 부지사, 크리스 길든 상원의원, 키스 게너 하원의원, 메리 레빗 하원의원 등을 만나 전북도의회 의장의 우호협력 의향서를 전달하고 양 의회간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북도의회와 미국 워싱턴주의회는 함께 성장하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로 약속하고, 올 10월 중에 전라북도의회 대표단이 워싱턴주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9월 초까지 양 의회 실무진은 구체적인 교류내용을 발굴하고 협의하여 우호협력 체결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며, 단순한 상호방문이 아닌 에너지·환경·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교육청과 워싱턴주교육청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뉘, 이병철 의원은 일정 중 워싱턴주 교육감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특교세 45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28일 정읍과 고창지역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정읍시는 △신대인 배수펌프장 개거 정비 10억원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 △덕천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원 △북면농공단지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1억원 등 총 4건,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했다.

고창군은 △고창농악전수관 증축 10억원 △홍덕 송내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 △고인돌박물관 미디어아트 체험존 구축사업 6억원 등 총 3건, 사업비 2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이차수 정읍시장, 삼덕섭 교장수와 함께 노력한 결과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45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김영식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91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8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1억원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재난위험 개선 및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의 13개 사업을 위한 9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확보한 완주·진안·무주·장수군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으로는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진안군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무주군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11억, 장수군 △아간체립관광시설 조성 18억 등으로,



4개 군에 골고루 배정됐다. 완주군의 경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완주 과학산단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8억 △삼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등 3개 사업 20억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 2억원, 무주군은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11억 △무주 가족센터 건립 6억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사업 6억 등 각각 3개 사업, 25억원씩을 나뉘어 확보했다.

장수군 또한 △장수군 아간체립관광시설 조성 18억 △중방 소교량 재가설사업 3억 △장척 새천 정비사업 3억 △왕곡 소교량 재가설사업 1억 등 4개 사업을 위한 25억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